

1월 3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3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지표-실적 악재` 뉴 욱 급락..다우 226p↓ [다우: 8,149.01pt (-2.70%)	29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나흘간의 랠리를 접고 급락세로 마침. 스타벅스와 쉘컴 등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 이날 발표된 신규주택판매 등 경제 지표들은 경기후퇴(recession)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내일 발표될 예정인 4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경계감도 비관론에 힘을 보탬. 전날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악재. 버락 오바마 새정부가 구상중인 `배드뱅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날 급등했던 금융주들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섬. S&P500 지수가 지난 나흘간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장기간 랠리를 펼친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지수에 하향 압력.
금융주 급락..배드뱅크 회의론 `부각`	배드뱅크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전날 급등세를 탔던 금융주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짐. 씨티그룹(C)이 7.1%,뱅크오브아메리카(BAC)가 8.3%, JP모간체이스(JPM)가 8.1% 각각 하락.
12월 신규주택판매 `사상 최저`	미국 상무부는 12월 신규주택판매가 연율 33만1,000채(계절조정)로 전월 대비 14.7% 급감했다고 밝힘. 이는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63년 이래 최저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45% 급감한 수치. 주택가격(중간값)은 20만6,50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3% 급락. 이는 5년 내 최저가. 지난해 전체 신규주택판매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48만2,000채를 기록. 이는 1982년 이후 최저치. 연간 주택가격은 23만600달러로 7% 하락. 이는 지난 1970년 이후 최대 낙폭.
내구재주문 5개월 연속 감소	미국의 경기후퇴가 심화되면서 내구재 주문은 5개월 연속 감소. 상무부는 12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6% 감소했다고 밝힘. 11월 내구재 주문 감소폭도 종전 발표된 1.5%에서 3.7%로 대폭 상향 수정.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내구재 주문은 5.7% 급감.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감소폭. 신용경색과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감소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제너럴모터스(GM)와 캐터필라 등 기업들은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어 내구재 주문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
국제유가, OPEC 감산 경고에도 하락 [WTI: \$41.44 (-\$0.72)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마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가능성을 피력했지만 미국의 우울한 경기지표들이 더 큰 영향. 국제유가는 미국의 부진한 경기지표 영향으로 장중 40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으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줬다.

제목	주요 내용
유로존 1월 ESI, 또 사상 최저	실물경제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경기체감지수(ESI)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 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와 기업체 중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유로존 ESI는 작년 12월의 70.4에서 1.5포인트 하락한 68.9였음. 이는 지난 1985년 1월 ESI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로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임을 시사.
中총리, 美에 반격..."위안화 합리적 수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미국측 입장에 대해 반박. 유럽 4개국 및 유럽연합(EU) 본부를 순방 중인 원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환율은 시장의 요구대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
코스피 `외국인·기관 공조` 1160선 회복	밤사이 뉴욕증시가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 소식으로 급등 마감한 것이 호재.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장기국채 매입을 시사한 것도 긍정적 영향. 개장 전에 들려온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의회 통과 소식도 정책 기대감을 되살리며 투자심리를 지지.
지난해 환란 이후 첫 경상수지 적자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2008년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2007년 58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64억1,000만달러 적자로 전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8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처음
현대제철 "작년 매출 10조 돌파..올해 7.8조 전망"	지난해 현대제철은 매출액 10조5,030억원, 경상이익 9,540억원, 당기순이익 8,225억원의 실적을 달성. 이는 전년대비 각각 42.3%, 42.3%, 58.2% 증가한 수치. 현대제철은 올해 일관제철소 건설에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올해 말 고로 1호기를 완공할 예정.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